

현대중국어 ‘来/去+LocNP’ 구문과 조사 ‘了’의 상호작용에 대한 정보구조적 분석

김영인* · 이명월**

<目次>

I. 서론	V. ‘来+LocNP’ 구문 분석
II. 선행연구 검토	VI. 정보구조와 조사 ‘了’ 및 화자 기준점의 상호작용
III. 이론적 배경	VII. 결론
IV. ‘去+LocNP’ 구문 분석	

I. 서론

현대중국어 학습자들이 자주 겪는 문법적 난제 가운데 하나는 표면적으로 유사해 보이는 문장들이 실제 원어민의 수용성에서 다르게 나타나는 현상이다. 예를 들어 다음 문장을 비교해 보자.

- (1) a. 他去中国了。
b. 他去了中国。
- (2) a. 他来中国了。
b. ?他来了中国。

위 문장들은 표면적으로 단지 동사 ‘来’와 ‘去’, 혹은 조사 ‘了’의 위치에

* 영남대학교 중국언어문화학과 강사 : 제1저자

** 국립경국대학교 인문·문화학부 중국어문·문화학전공 초빙교수 : 교신저자

만 차이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예문 (1)의 두 문장이 모두 자연스럽게 수용되는 것에 반해, 형식적으로 유사한 (2)는 a만 원어민에게 자연스럽게 인식되고, b는 어색하게 느껴진다.

이러한 현상은 단순히 이동 동사 ‘來’와 ‘去’의 의미 차이나, 동태조사 (了₁)와 어기조사(了₂)의 통사적 구분만으로는 충분히 설명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단일 동사구를 놓고 보면 ‘來’와 ‘去’ 모두 ‘了₁’과 결합할 수 있다는 점은 비교적 분명하다.

- (3) a. 他去了。
b. 他來了。

예문(3)에서 알 수 있듯이, 두 문장은 모두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며, 동사 뒤에 위치한 ‘了₁’이 단순히 사건의 완료를 기술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또한 Li & Thompson(1981)에 따르면, ‘了₁’의 사용에 있어 목적어가 한정적(referential)인 명사라면 문장의 수용성에 큰 제약을 주지 않는다.

- (4) a. 他喝冰紅茶了。
b. 他喝了冰紅茶。

‘冰紅茶’는 중국의 음료 브랜드명으로, 위와 같이 한정 명사 목적어가 뒤따르는 구조에서는 동사 뒤에 ‘了₁’이 위치하더라도 자연스럽게 수용되고, 문장 의미 또한 정보구조적으로 안정적으로 성립한다.

그러나 이렇게 어법서를 통해 습득한 지식은 오히려 예문(1)b와 (2)b의 상이한 수용성에 대한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다. 즉, (4)b와 같은 유형이 자연스럽게 성립하는 것을 이미 알고 있는 학습자 입장에서는, ‘來中國’에도 동일한 구조적 적용이 가능할 것이라고 예상하게 되지만, 실제 원어민의 직관은 이를 허용하지 않는다. 다시 말해, ‘他來了中國’가 어색하게 인식되는 이유는 단순히 ‘了₁’과 ‘了₂’의 통사적 위치나 한정성 조건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来/去+LocNP’ 구문과 조사 ‘了₁’, ‘了₂’가 결합할 때 나타나는 정보구조적 비대칭성에 주목한다. 다시 말해, 이동동사 ‘来/去’의 화자 기준점(speaker anchor)¹⁾과 조사 ‘了₁’, ‘了₂’의 기능이 정보 배치 및 초점화 과정에서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를 분석하고, 이를 통해 화자 인식의 방향성과 문장 수용성의 차이를 규명하고자 한다.

II. 선행연구 검토

현대중국어에서 ‘来/去’와 ‘了’에 관한 연구는 각각 상당히 축적되어 왔다.

먼저, ‘来/去’에 대한 연구는 방대하다. 전통적으로는 통사·의미적 관점에서 두 동사의 방향성 차이를 중심으로 논의되어 왔으며(吕叔湘 1999, 邢福义 1996 등), 특히 화자를 중심으로 하는 방향성을 내포함을 강조하였다. 다음은 ‘来/去’에 대한 吕叔湘(1999, 增订版)의 설명이다.

来: 从别的地方到说话人所处的地方。可带‘了、过’。(吕叔湘, 1999:345)

去: 从说话人所在的地方到别的地方。可带‘了、过’。(吕叔湘, 1999:455)2)

즉, 두 동사는 모두 화자를 기준으로 한 공간적 방향성을 가지며, 이는 ‘来’와 ‘去’의 기본 의미를 규정짓는 핵심 요소이다. 이러한 관점은 다수의 연구에서 일관되게 제시되어 왔다.

- 1) 화자 기준점(speaker anchor)은 Lyons(1977)과 Langacker(1991)의 논의를 따른 것으로, 발화 상황에서 모든 지시적 해석이 화자를 중심으로 정립된다는 개념을 의미한다. 즉, 공간·지시 해석에서 화자가 기준점(anchor)으로 기능하며, 이는 come/go 및 来/去와 같은 방향 동사의 의미 차이를 결정하는 핵심 요인이다.
- 2) 吕叔湘(1999)은 동사 去의 의미를 3가지, 来의 의미를 4가지로 분류하고 있으나, 본고의 연구대상에 해당하는 의미인 1번 의미만 명시하였다.

蕭惠帆(2003)은 ‘动词+来/去’ 구조를 분석하면서, ‘来’가 화자 공간으로의 접근, ‘去’가 화자 공간으로부터의 이탈을 나타내는 화자 지향적(deictic) 의미를 지닌다고 보았다. 郭维茹(2005) 또한 ‘来/去’의 방향보어로서의 통사적 기능과 의미 변화를 고찰하며, 두 동사의 발달이 화자 중심의 공간 인식에서 비롯되었음을 지적하였다. 더 나아가 杜晓蝶(2022)는 ‘V来’와 ‘V去’의 의미적 비대칭성을 분석하면서, 이 차이가 단순한 방향성의 문제가 아니라 화자를 중심으로 한 인지적 공간 구획, 즉 화자 기준 공간(anchor space)의 내부(同座落)와 외부(异座落) 구분에서 비롯된다고 설명하였다.

이러한 연구들은 모두 화자를 중심으로 한 공간적 기준점을 인식하고 이를 동사 뒤 보어로서 다루었지만, 대부분 ‘来/去’를 보어적 요소로 한정하여 논의하였다.

반면, ‘来/去’를 자립 동사로 설정하고 한정된 장소명사 목적어와 결합할 때 발생하는 정보구조적 제약을 논의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즉, 화자 중심 공간의 방향성은 곧 정보의 배치 방향과도 밀접히 관련되지만, 이러한 관점에서 사건 인식 구조를 탐구한 연구는 드물다.

다음으로, 조사 ‘了’에 관한 연구는 중국어 어법 연구 전반에서 가장 활발한 분야 가운데 하나이다. 그 의미와 기능을 둘러싸고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져 왔으며, 전통적으로 ‘了’는 사건의 완료뿐 아니라 상태의 변화, 즉 하나의 상황에서 다른 상황으로의 전환을 나타내는 표지로 이해되어 왔다(王力 1980). 이후 동사 뒤의 ‘了₁’과 문말의 ‘了₂’가 서로 다른 범주로 구분되면서, Li & Thompson(1981)과 吕叔湘(1999) 등은 각각 이를 완료상과 상태변화의 표지로 규정하였다.

최근 들어서는 ‘了’에 대해 통사·의미적 분석의 범위를 넘어, 담화적·화용적 층위에서 그 기능을 새롭게 조명하려는 시도가 활발해지고 있다.

Li, Xiaoshi, Li, Wenjing & Cui(2021)는 구어 담화 자료를 분석하여 ‘了’가 단순히 완료를 표시하는 상 표지에 그치지 않고, 담화 속에서 신정보를 제시하거나 변화된 사태를 보고하는 기능을 수행함을 실증적으로 보여주었다. 조은경(2013)은 자동사 ‘Vi’와 상 표지 ‘了’가 결합한 ‘NP_i Vi

了 NP₂’ 구문을 대상으로 정보구조적 분석을 시도하여, 해당 구문이 다양한 정보구조로 실현될 수 있으며, ‘了’가 단순한 완료상 표지가 아니라 사건의 발생과 정보 초점을 동시에 표지하는 역할을 한다고 하였다. 이해정(2024)은 ‘了₂’를 신정보화 표지로 규정하고, V了O, VO了, V了O了 구문이 담화 맥락에서 서로 다른 상호주관성 유형을 드러낸다고 밝히며, ‘了’가 단순한 시상적 표지가 아니라 화자의 인식과 청자의 이해를 매개하는 담화 표지로 기능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다양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동사 ‘来/去’와 조사 ‘了₁/了₂’라는 요소들이 정보구조의 실현 과정에서 어떻게 상호작용하며, 나아가 화자의 시공간 기준점과 어떤 연관을 가지는지를 설명할 수 있는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来/去+LocNP’의 화자 기준점과 ‘了₁/了₂’의 담화 기능이 상호작용하는 메커니즘, 그리고 그 상호작용이 구문적 비대칭과 초점 실현을 어떻게 제약하는지를 통합적으로 다루어 보고자 한다.

Ⅲ. 이론적 배경

1. 조사 ‘了₁, 了₂’의 기능과 분포

현대중국어의 ‘了’는 전통적으로 두 가지 주요 용법으로 나뉜다. 하나는 동사 뒤에 위치하는 ‘了₁’이고, 다른 하나는 문장 끝에 위치하는 ‘了₂’이다. 이 두 가지 ‘了’는 형식적으로 동일하지만, 통사적 분포, 의미 기능, 담화적 역할 측면에서 분명한 차이를 보인다.

1) ‘了₁’

呂叔湘(1999:351)에 따르면, ‘了₁’은 주로 동작이나 사건의 완료를 표시

하며, 동사에 목적어가 있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목적어 앞에 위치한다. 예를 들어, ‘我买了三张票’에서 ‘了₁’은 사건의 완료를 나타낸다.

Li & Thompson(1981:196)은 ‘了₁’의 사용을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였다³⁾.

- ① 양화된 사건: 예) ‘他睡了三个钟头’ 등
- ② 한정적이거나 특징적인 사건: 예) ‘我碰到了李慧(이름)’ ‘他写错了那个字(지시사 수식어)’ 등
- ③ 본래 제한적 사건: 예) ‘死, 忘’ 등.
- ④ 연속된 사건 중 첫 번째 사건: 예) ‘我理了发就去散步’ 등

특히 두 번째 유형에서, 비한정적·비특정적 사건은 ‘了₁’과 함께 사용하기 어렵다. 예를 들어, ‘?他喝了茶’에서 ‘茶’는 비한정적·비지시적이므로 사건의 완료 의미가 충분히 전달되지 않아 문장이 어색하게 느껴진다.

그러나 사건의 대상이나 범위를 특정하면 ‘了₁’의 사용이 자연스러워진다⁴⁾. Q: 他喝了什么? → A: 他喝了茶. 이처럼 ‘了₁’은 사건의 완결성과 대상 특정화를 표시하며, 담화적 관점에서 직접목적어 논항이 초점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2) ‘了₂’

반면, ‘了₂’는 문장 끝에 위치하며, 사건 자체의 완료보다는 상황의 변화 또는 새로운 상태의 출현을 나타내는 기능을 가진다. 다시 말해, 화자는 ‘了₂’를 사용함으로써 ‘지금까지와는 달라진 새로운 상황’이 펼쳐졌음을 나

- 3) Li & Thompson(1981:198)에 따르면, 이름, 대명사, 속격 수식어, 지시사 수식어, 관계절 수식어, ‘把’를 포함한 명사구 등은 모두 ② 한정적이거나 특징적인 사건에 해당한다. 또한 그들은 일부 동사가 그 자체의 의미로 인해 특수하고 한정된 사건을 나타내며, 死와 忘은 ③ 본래 제한적 사건의 예에 해당한다고 하였다.
- 4) Li & Thompson(1981)은 Spanos(1977)의 예문 ‘她问我昨天晚上做了什么’를 인용하여, ‘了₁’이 사건의 특정성을 나타낸다고 한 바 있다.

타내며, 이로써 문장이 자연스럽게 성립될 수 있도록 한다. 동사에 목적어가 있는 경우, ‘了₂’는 일반적으로 목적어 뒤에 위치한다.

예를 들어, ‘他出国了’에서 ‘了₂’는 청자에게 제삼자인 ‘他’에 대한 새로운 사실을 전달하거나, 사건이 진행됨에 따른 상황의 전환을 드러낸다. 이처럼 해당 문장에서는 술어와 논항이 모두 초점의 역할을 하며, 화자의 관점에서 사건이 새롭게 인식되는 전환점이 된다.

또한 ‘了₂’는 담화 종결 표지로서의 기능도 수행한다. Li & Thompson (1981:288)은 ‘了₂’가 ‘현재와 관련된 상태’를 나타낸다고 하였으며, 이러한 ‘了₂’는 종결 표지(marker of finality)로서 문장을 완결된 발화로 만들어 준다고 하였다. 따라서 ‘了₂’가 없는 경우, 문장이 완전하지 않은 느낌을 주고, 화자가 말을 이어갈 것 같은 인상을 남긴다. 이러한 기능은 아래 예문의 비교를 통해 명확히 확인할 수 있다.

- (5) a. 我吃得饱。
- b. 我吃得饱了。

예문 (5)a에서는 ‘了₂’가 없으므로, 청자는 발화가 아직 끝나지 않았거나 화자가 더 설명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예문 (5)b에서는 ‘了₂’가 사용되어 발화가 완결되었음을 명확히 나타내며, 화자의 상태 변화(배부름)와 현재 상황을 동시에 강조한다.

2. 동사 ‘来/去’의 의미 특성과 화자 기준점

현대중국어에서 이동 동사 ‘来’와 ‘去’는 단순한 방향 지시 동사가 아니라, 화자의 공간적 위치를 기준으로 방향성을 규정하는 지시 표현으로 기능한다.

Lyons(1977:667)은 지시 표현의 중심(deictic center)이 발화 시점의 화자에게 설정된다고 보았으며, ‘come’과 ‘go’와 같은 이동 동사는 이러한

중심점에 대한 공간적 정박(spatial anchorage)을 필수적으로 전제한다고 설명하였다. 즉 ‘come’은 화자 쪽으로의 이동을, ‘go’는 화자로부터의 이탈을 나타내는 동사로서, 화자가 지시 해석의 기준점(anchor)으로 기능한다. 이러한 관점은 중국어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으며, 화자의 공간적 기준점은 ‘來’와 ‘去’의 선택을 결정하는 핵심 요인이라 할 수 있다.

Langacker(1991:307) 또한 영어 ‘come’이 화자 자신 또는 화자가 설정한 기준점을 향한 이동을 전제한다고 설명하고, ‘go’는 이 기준점으로부터 벗어나는 이동을 나타낸다고 보았다. 즉, 두 동사의 의미 차이는 화자 기준점을 중심으로 한 지시적 방향성에 의해 구조화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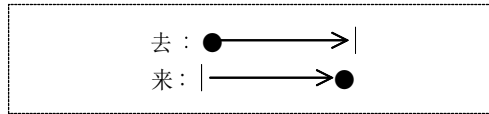
중국어에서 ‘來’도 화자의 위치 혹은 화자가 설정한 기준점을 향한 이동을 포함해야 하며, 이러한 공간적 기준점이 담화 속에서 분명히 드러날 때 문장이 자연스럽게 해석된다. 예컨대 ‘他今天来学校吗?’와 같은 문장은 화자가 현재 학교에 있거나, 대화 맥락에서 학교가 화자의 현존 위치로 간주될 때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진다. 반대로 이러한 전제가 충족되지 않으면 문장은 어색하게 인식될 수 있다.

이에 비해, ‘去’는 화자 기준점을 전제로 하면서도 그 방향성이 화자로부터 멀어지는 이동을 나타내므로, 기준점에 대한 의존성이 상대적으로 약하다. 즉, ‘去’는 단지 화자가 있는 장소로부터 떠나가는 방향을 제시하기만 하면 되며, 구체적인 도착지의 명시 여부나 도착지가 담화 속에 반드시 등장할 필요는 없다. 예를 들어 ‘他去学校了吗?’는 화자가 학교에 있지 않더라도 성립 가능하며, 청자는 단순히 그가 학교라는 장소로 이동했음을 이해할 수 있다. 이처럼 ‘去’는 화자의 현존 위치와 직접적으로 결부되지 않기 때문에 담화 해석의 자유도가 상대적으로 높다.

아래의 <그림 1>에서는 이러한 차이를 도식적으로 제시하였다. ‘去’는 화자가 위치한 지점(●)에서 외부로 향하는 이동을 나타내며, 도착점이 반드시 화자와 직접적으로 관련될 필요는 없다. 반면, ‘來’는 이동의 종착

5) Vendler(1957)는 동사의 상적 특성에 따라 동사를 상태동사(states), 활동동사(activities), 완결동사(accomplishments), 달성동사(achievements) 네 가지 유형

점이 화자가 있는 공간 혹은 화자가 지정한 기준점(●)에 놓이는 것을 전제로 한다. 따라서 담화 해석에서 볼 때, ‘来’는 화자 기준점에 대한 의존성이 ‘去’에 비해 훨씬 더 강하게 작용한다. 이러한 차이는 이후 ‘来’와 ‘去’가 각각 ‘了₁’, ‘了₂’와 결합할 때, 정보구조 차원에서 비대칭적인 제약을 발생시키는 중요한 근거가 된다.



〈그림 1〉 ‘来’와 ‘去’의 방향성 비교

3. 정보구조 이론의 기본 틀

Lambrecht(1994)는 정보구조를 ‘사태에 대한 개념적 표상인 명제, 특정 담화 맥락에서 화자의 심리 상태에 따라 정보 단위로 사용되고 해석되며, 이 과정에서 어휘 및 문법적 구조와 결합해 문장 문법의 한 부분을 이룬다’고 정의하였다. 그는 또한 문장의 정보구조가 담화에서 명제의 화용적 구조에 대한 형식적 표현이라고 하였으며, 정보구조의 범주를 전제(presupposition)와 단언(assertion), 확인가능성(identifiability)과 활성화(activation), 주제(topic)와 초점(focus)으로 구분하였다. Lambrecht(1994)에 따르면, 전제와 단언은 ‘청자가 이미 알고 있다고(혹은 알지 못한다고) 화자가 가정하는 부분에 대해 명제를 구조화한 것’과 관련되며, 주제와 초

으로 구분하였다. 현대중국어에서 ‘来’는 대체로 활동동사로 분류되는데, 이는 진행상 표지인 ‘在’와 결합해 사용할 수 있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예를 들어, ‘他在来’와 같이 쓸 수 있다. 하지만 ‘来’는 기존의 활동동사와 달리, 분명한 목표 지향성을 가진다는 점에서 차별화된다. 즉, 이 동작은 본질적으로 ‘도달’이라는 자연스러운 종결점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행위가 끝나거나 결과가 실현됐음을 나타낼 때(예: ‘他来了’), ‘来’는 달성동사와 유사한 의미 특성을 보이게 된다. 이러한 점에서 ‘来’는 [+동태성], [+지속성], [+종결지향]이라는 의미 자질을 동시에 지닌 독특한 활동동사로 평가할 수 있다.

점은 ‘주어진 담화 맥락에서 명제와 그 요소들 사이의 관계에 대한 상대적 예측 가능성과 불가능성에 대한 화자의 평가’와 관련된다.’⁶⁾

본 연구에서 사용된 주요 개념은 다음과 같다. 먼저 전제는 발화가 성립하기 위해 화자와 청자가 이미 공유하고 있다고 가정되는 명제적 배경을 의미한다. 반면 단언은 화자가 발화를 통해 청자에게 새롭게 전달하고자 하는 정보, 즉 청자가 발화를 들은 후 새롭게 인식하기를 기대하는 명제적 내용을 가리킨다. Lambrecht(1994)는 초점(focus)⁷⁾을 전제에 수반되는 정보로서 단언의 일부라고 보았으며, 초점은 전제와 단언을 구분해주는 핵심적인 정보적 요소로 기능한다고 하였다. 초점에 해당하는 정보는 담화에서 새롭게 제시되는 내용으로, 이전에 언급되지 않았거나 청자에게 예측되지 않은 정보를 포함한다. 문장의 정보구조에서 초점은 범위에 따라 문장 초점(sentence-focus construction), 서술어 초점(predicate-focus construction), 논항 초점(argument-focus construction)의 세 유형으로 구분된다. 이러한 구분은 발화 전체 중 어느 구성 요소가 초점으로 부각되는가에 따라 결정된다.

이상의 설명에서 알 수 있듯이, 정보구조 이론은 문법적 요소가 담화 맥락 속에서 어떠한 정보적 기능을 수행하는지를 설명하는 데 유효한 분석 틀을 제공한다.

6) 고석주·김현강 등 역, Lambrecht(1994) 저, 《정보 구조와 문장 형식》, 도서출판 월인, 19쪽.

7) 이와 유사하게, Halliday(1967)에 따르면 정보 초점은 일종의 강조로, 화자가 청자에게 정보적으로 해석되기를 바라는 전언의 일부(혹은 전체)를 표시하는 것이다. 전언의 초점은 화자에 의해 새로운 것으로, 담화적·상황적으로 유도될 수 없는 정보로 제시된다.

IV. ‘去+LocNP’ 구문 분석

1. ‘S+去+LocNP+了’의 정보구조적 해석

‘S+去+LocNP+了’는 정보구조적 관점에서 상황과 청자의 지식 상태에 따라 문장 초점, 서술어 초점, 논항 초점 세 가지 유형으로 분석될 수 있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동일한 문장이라도 담화 맥락에 따라 초점이 달라질 수 있으며, ‘了₂’가 사건 변화의 표지로서 초점 실현에 기여함을 확인할 수 있다.

먼저, 문장 초점은 문장 전체가 초점으로 제시되는 유형이다. 화자는 청자가 해당 사건의 발생 자체를 알지 못한다고 전제하며, 발화 전체를 초점으로 제시한다.

(6) A: 发生什么事了?/怎么了?

B: 小张去中国了⁸⁾。

전제: —

단언: ‘小张去中国了’

초점: ‘小张去中国了’

초점 영역: S(sentence)

위 (6)의 대화문에서 ‘小张去中国了’는 전체 사건, 즉 ‘그가 중국에 갔다’는 사실 전체가 새롭게 전달되는 문장 초점에 해당한다. 이때 문장 끝

8) 문장 초점 구조에서 ‘S+去+LocNP+了’ 형식의 주어 S는 반드시 비한정일 필요는 없으며, 형식적 한정성을 가진 고유명사도 담화 내에서 새롭게 도입되는 경우 자연스럽게 사용될 수 있다. 반면, 대명사 주어는 일반적으로 담화 내에서 이미 활성화된 정보로 처리되므로, 문장 초점 환경에서 사용이 제한된다. 즉, 문장 초점은 새로운 사건 전체를 제시하는 구조이므로, 청자가 이미 알고 있는 주체(예: 他/她)가 초점 발화의 출발점이 되기 어렵다. 이러한 점에서 ‘小张去中国了’는 자연스럽게, ‘他去中国了’는 동일한 맥락에서 질문(“发生什么事了?”)에 대한 적절한 응답으로 기능하기 어렵다.

의 ‘了₂’는 상황 변화의 발생을 표지하며, 문장 초점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그 기능을 충분히 발휘한다. 사건 전체가 전제되지 않은 새로운 정보로 제시되며, 만약 ‘了₂’가 제거될 경우 A의 질문 ‘发生什么事了?’ 또는 ‘怎么了?’에 대한 답변으로 ‘他去中国’만 제시되어 문장이 불완전해지고, 새로운 상황 선언 기능을 상실하게 된다. 따라서 ‘了₂’는 문장 초점 구조를 실현하는 필수 조건으로 작용하며, 이를 통해 전체 사건 ‘小张去中国’는 새롭고 청자에게 전달할 가치가 있는 정보 패키지로 구성되어 효과적으로 전달된다.

다음으로, 서술어 초점은 주어(혹은 담화의 주제)가 이미 전제된 상태에서, 서술어 부분이 새로운 정보로 부각되는 구조이다. 즉, 초점은 주어를 제외한 서술어, 즉 ‘어떻게 되었는가’에 놓이며, 발화의 핵심 정보는 서술어 전체에 집중된다.

(7) A: 小张怎么了?

B: 小张/他去中国了₂。

전제: Xiaozhang(he) is a topic for comment x.

단언: ‘x=去中国了’

초점: ‘去中国了’

초점 영역: VP

(7)의 대화문에서 ‘小张’은 전제된 화제(topic)로, 발화의 정보 중심은 ‘去中国了’에 놓인다. 다시 말해, ‘去中国了’는 새롭게 발생한 사건이나 상태의 변화를 나타내며, 서술어 초점 역할을 한다. 이 때 ‘了₂’는 서술부에 부착되어 화제와 관련된 새로운 상황의 출현을 표지하는 핵심 장치로 작

- 9) 서술어 초점 구조에서 주어 S는 이미 질문 발화에서 제시되어 담화적으로 활성화된 정보이다. 따라서 응답에서는 고유명사 ‘小张’과 이를 지시하는 대명사 ‘他’ 모두 사용될 수 있다. 즉, 서술어 초점 환경에서는 초점이 술어부에 놓이므로, 주어가 담화 내에서 이미 공지된 정보라는 점만 유지된다면 주어의 형태 선택은 초점 해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러한 주어 실현 방식에 대한 제약은 아래에서 다루는 논항 초점 구조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용한다. 다만 문장 초점 구조와 달리, 발화 전체의 초점을 구성하는 역할을 전면적으로 수행하지는 않으며, 그 작용 범위가 보다 제한적이라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了₂’는 ‘去中国’이라는 사건이 최근에 발생하였고, 그 결과가 현재 시점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강조한다. ‘了₂’가 없는 ‘他去中国’은 단순한 사실 진술 또는 향후 계획의 서술로 해석될 수 있는 반면, ‘了₂’가 포함된 문장은 상태 변화의 결과, 즉 ‘그가 중국에 있지 않은 상태에서 중국에 있는 상태로의 전이’를 드러낸다. 따라서 이 경우 ‘了₂’는 서술어 초점의 구성 요소로 기능하며, 서술어가 담화 내에서 새로운 정보로 작용하고 그 신정보성을 강화한다. 다시 말해, ‘了₂’는 사건의 변화를 표지함으로써 발화의 서술부 전체를 화제에 대한 새로운 진술로 인식시키는 역할을 수행한다.

마지막으로, 논항 초점은 서술 구조에서 특정 논항(argument)이 새롭게 제시되는 경우이다. 주로 의문문에 대한 대답에서 나타나며, ‘누가/어디로/무엇을’ 등의 논항 정보가 초점화된다. 본 연구에서 분석하는 논항 초점은 주로 목적어 논항 초점, 즉 장소 성분(LocNP)을 중심으로 고찰하며, 주어(S)의 논항 초점¹⁰⁾은 분석 대상에서 제외한다.

- (8) A: 小张去哪里了?
 B: 小张/他去中国了。
 전제: Xiaozhang(he) went to x.
 단언: ‘x=中国’
 초점: ‘中国’
 초점 영역: NP

(8)의 대화문에서 의문문은 이미 ‘小张이 어느 장소로 갔다’는 사건을 전제로 하며, 답변인 ‘他去中国了’의 핵심 역할은 전제된 변수인 장소에

10) 주어 S에 대한 논항 초점 구조는 ‘谁去中国了?’와 같은 질문에서 관찰될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장소 성분을 중심으로 한 목적어 논항 초점에 한 정하여 분석하며, 주어 초점 구조는 논의 범위에서 제외한다.

대한 구체적인 값, 즉 ‘中国’을 제시하는 데 있다. 이때 정보 초점은 장소 논항인 ‘中国’에 집중되며, 필요에 따라 대비적 강세를 통해 운율적으로 강조될 수 있다. 문장 끝의 ‘了₂’는 초점을 직접 전달하는 장치라기보다는, 전제된 사건이 이미 성립돼 새로운 상태가 마련됐음을 보여주는 역할을 한다. 즉, ‘그가 어느 장소로 갔다’는 사건 전체가 실현되어 현재 새로운 상태가 형성되었음을 명확히 보여주어, 초점 성분인 ‘中国’가 현실성을 기반으로 확정될 수 있도록 한다. 결과적으로 이 문장은 효율적인 정보구조를 제공하며, ‘了₂’는 전체 프레임의 유효성을 보장하고, 초점 강세는 특정 논항에 대한 정확한 값의 제시를 완결짓는 역할을 수행한다.

2. ‘S+去+了+LocNP’의 정보구조적 해석

‘S+去+了+LocNP(小张/他去了中国)’는 ‘S+去+LocNP+了(小张/他去中国了)’와 달리 정보구조적 해석에서 단순한 특성을 보인다. 동사 ‘去’ 뒤에 위치한 ‘了₁’은 동작의 완료를 명확히 나타내지만, 문장 끝에 새로운 상황의 출현을 나타내는 ‘了₂’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로 인해 해당 문장은 새로운 사건을 도입하거나 사건 전체를 선포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없다.

예를 들어, 문장 초점 구조를 유발하는 질문인 ‘发生什么事了?’, ‘怎么了?’ 또는 서술어 초점 구조를 유발하는 질문 ‘他怎么了?’에 대한 자연스러운 답변으로는 적합하지 않다. 이는 문장 끝의 ‘了₂’가 없기 때문에, 전체 사건이나 서술어 부분이 새로운 상황으로 전달되는 힘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9) A: 怎么了?

B: *小张去了中国。

(10) A: 小张怎么了?

B: *小张/他去了中国。

따라서 ‘他去了中国’는 자연스러운 대화에서는 논항 초점 구조로만 분석될 수 있다. 이 구조에서는 사건의 핵심 요소, 즉 장소 정보가 이미 대화 참여자 모두에게 알려진 배경이라는 점이 전제된다. 따라서 대화의 목적은 사건 전체가 아니라 사건 내 특정 논항, 즉 ‘어느 장소로 갔는가’를 확인하는 데 집중된다. 해당 문장의 정보구조는 다음과 같이 분석할 수 있다.

- (11) A: 小张去了哪里?
 B: 小张/他去了中国.
 전제: Xiaozhang(he) went to x.
 단언: ‘x=中国’
 초점: ‘中国’
 초점영역: NP

이러한 분석을 통해, 조사 ‘了_i’는 논항 초점 구조와 부합하며, 사건 내 논항인 장소 명사구(LocNP)를 명확히 제시하는 기능을 수행함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이 구조에서는 초점이 제한된 범위인 명사구(NP) 안에서 새로운 정보로서 운율적 강조를 받을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화자가 전달하고자 하는 초점 정보가 보다 효율적으로 청자에게 인식된다.

V. ‘来+LocNP’ 구문 분석

1. ‘S+来+LocNP+了’의 정보구조적 해석

‘S+去+LocNP+了(他去中国了)’는 문장 초점, 서술어 초점, 논항 초점 세 가지 유형으로 분석될 수 있지만, 형식적으로 동일한 ‘S+来+LocNP+了(他来中国了)’는 문장 초점과 서술어 초점 두 가지 유형으로만 분석될 수 있다. 이러한 차이는 학습자에게 의미 해석이나 정보구조 파악에서 혼란을

일으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먼저 문장 초점 구조에서 ‘小张来中国了’의 기능과 특성을 분석해 보자.

(12) A: 发生什么事了?/怎么了?

B: 小张来中国了。

전제: —

단언: ‘小张来中国了’

초점: ‘小张来中国了’

초점 영역: S(sentence)

(12)에서 ‘小张来中国了’는 전체 사건, 즉 ‘그가 중국에 왔다’는 사실 자체가 새롭게 전달되는 문장 초점에 해당한다. 문장 초점 구조에서 ‘小张来中国了’와 ‘小张去中国了’는 본질적으로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며, 사건 전체를 새로운 정보로 제시한다. 즉, 문장 초점에서는 ‘来’와 ‘去’ 구문 간에 정보구조상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다. 발화의 중심 정보는 사건 자체에 놓이며, 문장 말미의 ‘了₂’는 사건이 완료되어 새로운 상황으로 전환되었음을 강조하는 역할을 한다.

다음으로, 서술어 초점 구조에서의 특성을 살펴보자.

(13) A: 小张怎么了?

B: 小张/他来中国了。

전제: Xiaozhang(he) is a topic for comment x.

단언: ‘x=来中国了’

초점: ‘来中国了’

초점 영역: VP

(13)에서 ‘小张来中国了’는 주어 ‘小张’이 이미 담화 내에서 전제된 화제로 기능하고 있으며, 발화의 핵심 정보는 서술부 ‘来中国了’에 놓인다. 따

라서 이 구문은 전형적인 서술어 초점 구조를 보여준다. 이 점에서 ‘他来中国了’와 ‘他去中国了’는 기능적으로 유사하며, 두 구문 모두 서술어 전체가 새로운 사건의 발생이나 상태의 변화를 제시하고, 화제에 대한 새로운 진술로 인식된다.

마지막으로, ‘小张来中国了’가 논항 초점 구조로 실현되지 않는 구체적 양상을 살펴보자. ‘小张/他去中国了’와 마찬가지로, ‘来’ 구문을 논항 초점 구조로 설정하면 다음과 같은 질문을 만들 수 있다.

(14) A: ?小张来哪里了?

B: 小张/他来中国了。

문법적으로만 보면 ‘?小张来哪里了?’는 주어 ‘小张’과 동사 ‘来’가 결합하고, 장소 의문사 ‘哪里’가 목적어처럼 배치되어 문법적 오류는 없어 보인다. 그러나 실제 언어 사용에서 원어민 화자는 이러한 문장을 어색하게 인식하여 채택하지 않는다. 이러한 특성은 ‘来+LocNP’ 구문에서 장소가 초점으로 설정될 경우에 나타나는 화자의 인지적 관점과 사건 전체의 정보구조 간의 부조화 때문이다. ‘来’는 화자 중심의 이동 사건을 나타내는 동사로, 이동의 종착점이 화자가 있는 공간 또는 화자가 지정한 기준점이 이미 전제되므로 종착점은 이미 화자의 인지 범위 내에 존재하게 된다. 따라서 장소 논항이 초점 정보로 설정될 경우, 초점 정보와 화자의 인지적 관점이 불일치되어, 문법적으로는 성립하더라도 실제 발화에서는 문장이 어색하게 인식된다. 이러한 현상의 구체적 원인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상세히 다루기로 한다.

2. ‘?S+来+了+LocNP’의 정보구조 해석

문법적으로 ‘?S+来+了+LocNP(小张来了中国)’는 ‘小张去了中国’와 형식적으로 동일하며, 동사 뒤에 조사 ‘了_i’만 존재하고, 문미에 새로운 상황

출현을 나타내는 ‘了₂’가 부재하다는 특징을 가진다. 이러한 구조적 특성 때문에 ‘?小张来了中国’는 문장 초점 구조나 서술어 초점 구조로 해석될 수 없다. 예를 들어 다음의 대화문을 보자.

(15) A: 怎么了?

B: *小张来了中国。

(16) A: 小张怎么了?

B: *小张/他来了中国。

위 예문에서 볼 수 있듯이, ‘小张来了中国’는 문장 전체 또는 서술어가 초점인 구조에서는 자연스럽게 사용될 수 없다. 만약 ‘?他来了中国’가 문법적으로 성립된다면, 형식상 ‘他去了中国’와 유사하게 논항 초점 구조로만 분석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실제 언어 사용에서 ‘?他来了中国’는 원어민 화자에게 매우 어색하게 느껴진다.

논항 초점 구조를 확인하기 위해 질문을 구성하면 다음과 같다.

(17) A: ?小张来了哪里?

B: ?小张/他来了中国。¹¹⁾

위 예문에서 알 수 있듯이, 이러한 논항 초점 구조를 확인하기 위한 질

11) ‘S+来+了₁+LocNP’ 구조는 의외성, 계획과 다른 결과, 여러 가능성 중 하나의 실현과 같은 특정 담화 상황에서 사용될 수 있다. 예를 들면 아래와 같다.

(1) 本来希望他去日本, 结果他来了韩国。

(2) 他来了韩国, 没去日本。

이러한 문맥에서의 ‘他来了韩国’는 단순히 ‘그가 왔다’는 사실을 진술하는 것이 아니라, 예상이나 다른 가능성과의 대조 관계를 드러내는 대조적 초점 정보구조로 해석된다. 다시 말해, 이 유형은 화자의 인식 속에서 ‘올 것으로 예상되지 않았던 인물의 방문’이나 ‘여러 가능성 중 특정 결과의 실현’을 두드러지게 보여 주는 정보구조이다. 반면, 본 연구에서 다루는 ‘他来了韩国’는 이러한 대조적 초점 구조가 아니라, ‘그가 어딘가에 왔다’는 사건의 실현 자체를 진술하는 정보구조에 한정된다.

문 자체에도 문제가 존재한다. 목적어가 ‘哪里’이든 ‘中国’이든, 앞서 분석한 ‘?小张来哪里了?’와 마찬가지로 원어민 화자에게 부자연스럽게 느껴진다. 그 원인은 동일하게 초점 정보와 화자의 인지적 관점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문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문장이라 하더라도 실제 사용 맥락에서는 부자연스럽게 느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来+LocNP’ 구문이 지닌 정보구조적 제약을 보여 주며, 단순한 형식적 문법 규칙만으로는 설명될 수 없는 화자 기준점의 영향이 작용함을 시사한다. 따라서 논항 초점 구조의 설정 가능성은 문장의 구조적인 형식과 화자의 인지적 관점이 상호작용하면서 제한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Ⅵ. 정보구조와 조사 ‘了’ 및 화자 기준점의 상호작용

1. ‘来’와 ‘去’ 구문의 정보구조 해석의 대조적 분석

Lambrecht(1994)에 따르면 초점은 전제와 단언을 구별하는 핵심적인 정보구조 요소로, 초점이 어떻게 설정되는지에 따라 발화의 초점 범위와 정보 해석 방식이 달라진다. 즉, 동일한 명제라고 하더라도 초점이 어디에 놓이느냐에 따라 청자가 새롭게 인식하는 정보의 범위가 달라질 수 있다.

앞서 살펴본 ‘来’와 ‘去’ 구문의 분석 결과를 종합해 보면, 두 구문은 표면적으로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으나, 정보구조 실현 양상에서는 뚜렷한 비대칭성을 보인다. 형식적으로는 ‘S+V+LocNP+了’와 ‘S+V+了+LocNP’의 두 가지 구문 틀이 모두 존재하지만, ‘来’ 구문에서는 화자 기준점 및 정보구조적 제약으로 인해 ‘S+来+了+LocNP’ 형식이 자연스럽게 실현되기 어렵다. 이는 두 구문이 허용하는 초점 유형과 초점 범위의 차이로 이어지며,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표에 정리하였다.

〈표 1〉 ‘來’와 ‘去’ 구문의 정보구조 실현 양상 비교

동사	형식	문장 초점	서술어 초점	논항 초점
去	S+去+LocNP+了	+	+	+
	S+去+了+LocNP	-	-	+
來	S+來+LocNP+了	+	+	-
	?S+來+了+LocNP	-	-	-

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去’ 구문은 문장 초점, 서술어 초점, 논항 초점¹²⁾ 구조가 모두 실현된다. 반면 ‘來’ 구문은 주로 문장 초점이나 서술어 초점 구조로만 나타나며, 논항 초점 구조 형성에는 제약이 따른다. 이는 ‘來’가 지닌 화자 중심적으로 형성된 기준점이 초점의 실현 범위를 제한하기 때문이다. 즉 화자의 인식 범위 안에 이미 존재하게 된 장소 논항은 새로운 정보로 인식될 수 없고, 따라서 ‘?S+來+了+LocNP’와 같은 구문은 장소 논항에 초점을 부여하기 어렵고, ‘?他來了中國’ 또한 일반 담화 맥락에서 자연스럽게 사용되기 어렵다.

결국 두 구문은 표면적으로는 동일한 통사 형식을 공유하더라도, 그 내부의 정보구조 실현 방식은 동사의 화자 기준점과 화자 인식의 방향성에 따라 달라진다. 이런 차이로 인해 ‘去’ 구문은 다양한 초점 구조를 유연하게 실현시킬 수 있는 반면, ‘來’ 구문은 특정 초점 유형에 한정되는 비대칭적 분포를 보인다.

2. ‘來’와 ‘去’ 구문과 조사 ‘了’의 상호작용 관계

‘來/去’ 구문에서 ‘了₁’과 ‘了₂’는 각각 다른 초점 실현 방식과 긴밀하게

12) ‘S+去+LocNP+了’와 ‘S+去+了+LocNP’는 모두 논항 초점 구조로 실현 가능하지만 그 화용적 의미에는 차이가 있다. 예를 들어, ‘他去哪裏?’라는 질문은 ‘了₂’의 작용으로 그의 존재에서 부재로의 변화를 환기시키며, 화자가 현재 있는 공간에서 ‘他’가 사라져 어디로 향했는지를 묻는 질문에 해당한다. 반면 ‘他去了哪裏?’는 ‘了₁’의 작용으로 그가 어디론가 간 사건이 일어났지만 간 장소를 모를 때 할 수 있는 질문이다.

연관되어 있다.

먼저 ‘S+去/来+LocNP+了’ 구조에 포함된 것은 ‘了₂’이다. 이 표지는 상황의 변화나 새로운 사건의 출현을 나타내며, 발화 내에서 초점 실현의 핵심 표지로 작용한다. 앞서 분석한 바와 같이, ‘S+去+LocNP+了’ 구문은 문장 초점, 서술어 초점, 논항 초점의 세 유형으로 실현될 수 있는 반면, ‘S+来+LocNP+了’ 구문은 문장 초점과 서술어 초점 두 유형만 실현 가능하다. 즉, 동일한 문말 표지 ‘了₂’가 존재하더라도, 화자 기준점의 제약으로 인해 ‘来’ 구문에서는 초점의 유형이 제한되며, 정보구조적 실현 양상이 달라진다. 특히, 문말의 ‘了₂’는 초점의 범위에 따라 작용 강도가 달라진다. 문장 초점 구조에서는 ‘了₂’가 발화 전체를 새로운 정보로 제시하는 핵심 표지로 작용하고, 서술어 초점 구조에서도 새로운 사건의 출현을 나타내지만 그 초점 작용은 발화 전체가 아닌 서술부 내부로 제한된다. 반면 논항 초점 구조에서는 ‘了₂’가 이미 전제된 사건의 실현을 확인하는 데 그치며, 초점 형성에는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는다. 이러한 양상을 아래 표에 정리하였다¹³⁾.

〈표 2〉 ‘了₂’과 ‘来/去’ 구문의 상호작용

유형	문장 초점 →	서술어 초점 →	논항 초점
형식	[[S+去/来+LocNP]+了 ₂]	[S+[[去/来+LocNP]+了 ₂]]	[S+去+[LocNP]+了 ₂]
예문	[小张去/来中国]了	[小张[[去/来中国]了]]	[小张去[中国]了]
了 ₂ 의 기능	전체를 새로운 정보로 제시	새로운 사건의 출현만을 제시	전제된 사건의 실현을 확인함에 그침

13) 논항 초점 구조는 ‘去’ 구문에서만 자연스럽게 실현되며, ‘来’ 구문에서는 논항 초점 해석이 성립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본 표의 논항 초점 예문은 ‘去’ 형식만 제시하였다.

한편, ‘S+去/來+了+LocNP’ 구조에 포함된 것은 ‘了_i’이다. ‘了_i’은 동작의 완료를 표시하는 동시에, 논항 초점을 형성하는 경향을 보인다. 즉, 사건 내 특정 논항인 장소 성분을 새로운 정보로 제시하여 발화 내 정보 초점의 중심으로 부각시키는 기능을 수행한다. 따라서 ‘了_i’은 사건의 완료성과 정보구조적 초점화 기능이 결합된 이중적 표지로 이해할 수 있다. 그 구체적 분포와 기능은 아래 표에 제시하였다.

〈표 3〉 ‘了_i’과 ‘來/去’ 구문의 상호작용

형식	S+去+了 _i +LocNP	?S+來+了 _i +LocNP
초점 유형	논항 초점	논항 초점(제약 있음)
초점 범위	LocNP(장소)	LocNP(장소)
예문	他去了中國。	?他來了中國。
‘了 _i ’의 기능	동작의 완료를 표시함과 동시에 장소 논항을 신정보로 제시	동작의 완료를 표시하지만, 화자 기준점으로 인해 초점 형성이 제약됨

3. 화자 기준점이 ‘來’와 ‘去’ 구문의 정보구조 실현에 미치는 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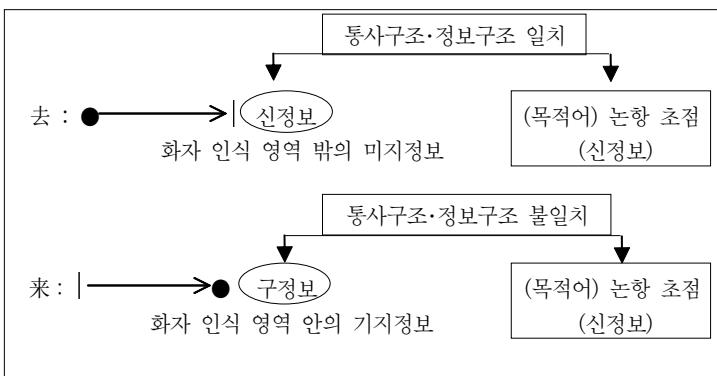
화자 기준점은 ‘來’와 ‘去’의 의미적·담화적 차이를 결정하는 핵심 요인이다. 이 두 동사는 모두 이동을 나타내지만, ‘去’는 화자의 인식 범위 밖으로의 이동, ‘來’는 화자의 인식 범위 안으로의 이동을 전제로 한다. 이러한 공간적 지향성은 단순히 위치의 변화를 의미하는 데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 인지적 거리감과 정보 접근성에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쳐, 담화 내에서 정보구조가 실현되는 방식도 근본적으로 달라진다.

‘去’의 기본 의미는 화자의 현재 위치로부터 멀어지는 ‘이동’이며, 담화 상황에서는 주로 화자 인식 영역 밖의 미지정보를 표현하는 데 사용된다. ‘去’는 단지 출발점을 기준으로 한 방향성을 제시할 뿐, 구체적 도착지의 명시를 요구하지 않는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去’ 구문에서는 도착지나

목적어가 종종 화자가 새롭게 인지하게 되는 정보로 설정된다. 따라서 정보구조의 관점에서 보면, 통사적 초점 위치(논항)와 담화적 초점(새로운 정보)이 자연스럽게 일치한다. 즉, 논항(장소 목적어)이 새로운 정보로 제시되면서 초점 영역이 형성된다. 이로 인해 ‘去’ 구문은 문장 초점, 서술어 초점, 논항 초점의 세 구조가 모두 실현 가능하다.

반면 ‘来’는 화자의 지점으로 향하는 ‘도달’을 의미하며, 이는 화자와의 연관성을 강하게 전제한다. 따라서 ‘来’ 구문은 일반적으로 화자의 인식 영역 안의 기지정보를 전제로 한다. 즉, 화자는 이미 도착지를 알고 있거나, 대화의 맥락 속에서 그 정보를 공유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来’ 구문에서는 목적어가 완전히 새로운 정보가 되기 어렵고, 오히려 배경 정보로 작용하는 경향이 있다. 이로 인해 ‘来’ 구문에서는 정보구조와 통사구조 간의 불일치가 나타난다. 즉, 문법적으로는 목적어가 초점 위치에 놓일 수 있지만, 담화적으로는 그것이 새로운 정보로 해석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来’ 구문에서는 논항 초점 구조가 자연스럽게 실현되지 않으며, 문장 초점과 서술어 초점의 형태로만 안정적으로 실현된다.

이러한 차이는 아래의 도식으로 정리할 수 있다.



〈그림 2〉 화자 기준점과 정보구조 실현의 상호작용

VII. 결론

본 연구는 ‘來’와 ‘去’가 ‘S+來/去+了+LocNP’ 및 ‘S+來/去+LocNP+了’ 구문에서 보이는 비대칭적 사용 양상을 출발점으로 하여, 각 구문을 정보 구조적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來’와 ‘去’는 동일한 형식 내에서도 다양한 정보구조 실현 양상을 보임을 확인하였다. 구체적으로, ‘S+去+LocNP+了’ 구문은 문장 초점, 서술어 초점, 논항 초점의 세 가지 구조로 모두 기능하는 반면, ‘S+來+LocNP+了’ 구문은 문장 초점과 서술어 초점으로부터만 기능함을 확인하였다. 또한 ‘S+去+了+LocNP’ 구문은 논항 초점 구조로 자연스럽게 기능하지만, ‘S+來+了+LocNP’ 구문은 논항 초점 구조가 성립하지 않는다.

이러한 차이는 ‘了’의 위치(‘了₁’/‘了₂’)와 화자 기준점의 상호작용에 기인한다. 먼저 조사 ‘了’의 측면에서 보면, 문말의 ‘了₂’는 ‘S+來/去+LocNP+了’ 구문에서 문장 초점, 서술어 초점, 논항 초점 형성에 모두 관여하며, 동사 뒤에 오는 ‘了₁’은 ‘S+來/去+了+LocNP’ 구문에서 논항 초점의 실현을 유도하는 경향을 보인다. 즉, ‘了₁’은 사건 내부의 완료성을 표지하고, ‘了₂’는 담화 내 새로운 상황의 출현을 표지함으로써, 두 구문은 초점 실현 방식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화자 기준점에 있어서도 ‘來’와 ‘去’ 구문 간의 차이는 한층 뚜렷하게 드러난다. ‘去’의 경우, 도착지가 화자 인식 범위 밖의 미지정보로 설정되며, 이때 도착지나 목적어는 화자가 새롭게 인지하는 정보로 기능한다. 따라서 통사적 초점(논항)과 담화적 초점(신정보)이 자연스럽게 일치하여, 논항 초점 구조가 안정적으로 실현된다. 반면, ‘來’의 경우 도착지가 화자 인식 범위 안의 기지정보로 전제되므로, 목적어가 완전한 신정보로 작용하기 어렵다. 그 결과 정보구조와 통사구조 간의 불일치가 발생하며, 논항 초점 구조의 실현은 제약을 받게 된다.

< 참고문헌 >

- 고석주·김현강 등 옮김, Lambrecht 지음, 《정보구조와 문장 형식》, 서울: 도서출판 월인, 2000.
- 이혜정, 〈담화화용 층위에서의 ‘了’자구 대조연구〉, 《중어중문학》 제98집, 2024.
- 조은경, 〈현대중국어 빈어를 수반한 자동사 구문 ‘NP₁Vi了NP₂’의 정보구조에 대한 고찰〉, 《중국학논총》 제54집, 2016.
- 郭维茹, 《指示趋向词“来”、“去”之句法功能及历时演变》, 国立台湾大学文学院中国文学研究所博士论文, 2005.
- 刘月华, 《实用现代汉语语法》, 北京: 商务印书馆, 2001.
- 吕叔湘, 《现代汉语八百词(增订本)》, 北京: 商务印书馆, 1999.
- 萧惠帆, 《从语法到教学论词汇“来”“去”的趋向和情态》, 国立台湾师范大学国际与侨教学学院华语文教学研究所硕士论文, 2003.
- 王 力, 《汉语语法理论》, 北京: 中国社会科学出版社, 1980.
- 邢福义, 《现代汉语语法理论研究》, 北京: 北京语言学院出版社, 1996.
- 朱德熙, 《语法讲义》, 北京: 商务印书馆, 1982.
- 杜晓蝶, 〈‘V来’与‘V去’的不对称研究〉, 《现代语言学》 第10期, 2022.
- Lambrecht, Knud. *Information Structure and Sentence Form: Topic, Focus, and the Mental Representations of Discourse Referent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4.
- Langacker, Ronald W. *Foundations of Cognitive Grammar: Volume 2. Descriptive Application*.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1991.
- Li, Charles N., & Thompson, Sandra A. *Mandarin Chinese: A Functional Reference Grammar*.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81.

- Lyons, John. *Semantics*(Vol. 1 & 2).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77.
- Li, Xiaoshi, Li, Wenjing & Cui, Yaqiong. “The use of LE 了 in Mandarin Chinese oral discourse: A sociolinguistic perspective”, *Chinese Language and Discourse: An International and Interdisciplinary Journal* 12 no. 1, 2021.

<Abstract >

This study examines the asymmetric distribution of lai(來) and qu(去) in the constructions ‘S+lai/qu+le+LocNP’ and ‘S+lai/qu+LocNP+le’, focusing on how their information-structural functions diverge. The findings show that ‘S+qu+LocNP+le’ can serve as a sentence-focus, predicate-focus, or argument-focus structure, whereas ‘S+lai+LocNP+le’ is restricted to sentence-focus and predicate-focus uses. Moreover, ‘S+qu+le+LocNP’ readily forms an argument-focus structure, while ‘S+lai+le+LocNP’ does not.

These differences stem from the interaction between the two types of le and the speaker-anchored deictic orientation of the verbs. Verb-adjacent le₁ in ‘S+lai/qu+le+LocNP’ marks event-internal completion and tends to induce argument focus, while sentence-final le₂ in ‘S+lai/qu+LocNP+le’ signals the emergence of a new discourse state. The semantics of lai and qu further reinforce the asymmetry: qu introduces the destination as discourse-new, aligning syntactic and pragmatic focus, whereas lai presupposes the destination as given, constraining argument-focus realization.

Key Words : 정보구조(information structure), 서술어 초점(predicate focus),
논항 초점(argument focus), 문장 초점(sentence focus), 화자
기준점(speaker anchor), 来(lai), 去(qu), 了(le)

